

“목숨 걸고 민주화 위해 싸운 사람들 알려겠다”

70년대 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15>위성삼

5·18 열흘간 계엄군에 투쟁...최후항쟁 때 도청 총경비 전일빌딩 해설사로 활동...“봉심정 살아있는 교육의 장”

“내 등에 ‘극렬’이라고 쓰더라고...이 후 상무대 영장에 끌려가 힘든 시간 보냈지 뭐.”

위성삼(68)씨는 1980년 5월 도청 내 총경비를 맡았고, 계엄군에 맞서 열흘간 끊임없이 투쟁하다 최후의 항쟁에서 총상을 입고 상무대로 끌려갔다.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 후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74학번으로 입학한 그는 1980년 5월19일 최초 발포를 확인한 목격자이기도 하다.

위씨는 중학생 시절 삼선개헌 후 옹고그에 대한 이분법적 기준으로 배우는 교육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김대중의 연설장을 직접 찾아 듣고 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군대를 다녀온 후 그는 1979년 반유신과 민주화를 염원하며 소용돌이치는 시국을 신문, 뉴스로 접했고 운동권 체계에 속해있진 않았지만, 마음은 의협심과 정

의감으로 끓어올랐다.

이처럼 민주화 열망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열린 5월15일 민주대성회에 위씨는 조선대학생으로 참여했고, 다음날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햇불시위를 이어갔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박관현의 연설에 감동받은 시민들이 하나둘 길거리로 모여들던 때였다.

이후 매일 시위대와 거리에서 ‘전두환 타도,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는 19일 당시 계엄동 과출소 인근 사촌 누나의 집을 찾았고 장갑차에서 군인이 내려 최초로 발포한 것을 목격했다.

위씨는 실제 발포가 있을 거로 생각지 못하고 ‘공포탄이다’라고 소리질렀지만 이후 고등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달려가서 부축했을 때 그는 피 흘리는 학생의 동복 마이에 달린 조대부고생 명찰을 확인했다.

실제 발포를 목격한 시민들은 혼비백



위성삼(68)씨는 1980년 5월 도청 내 총경비를 맡아 계엄군에 맞서 열흘간 끊임없이 투쟁했다. 위씨는 현재 전일빌딩 245에서 해설사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에 빨뿔이 흩어졌고 위씨는 학생을 인계하고 다시 시위대로 합류했다.

21일 위씨는 이런 상황을 타 지역에도 알려야 한다면서 방직공장 여직원을 30여명, 시위대 등 총 50여명과 버스를 타고 목포로 향했다.

하지만 광주쪽에서 나주방향으로 지프를 타고 온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광주에서 오후 1시 집단발포를 시작했다’고 알렸고 일행은 살기 위해서 총이 필요한단 생각으로 나주경찰서 무기고로 방향을 돌렸다.

이후 젊은이 20여명만 남아 무기를 가지고 광주로 돌아왔고 광주공원에서 집합했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청년들에게 총

기를 다루는 교육을 시작했고 각자 건물을 분산해 맡아 지키기로 하고 흩어졌다.

위씨는 25일 끝기대회에서 만난 대학생 수습위원회 윤상원의 인솔하에 도청 수습을 위해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그곳 3층에서 그는 윤강욱을 처음 만났다.

위씨는 경비대장을 자처했다. 또 YWCA에서 온 8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기 교육을 시키고, 조사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강경 진압이 확실시된 26일 도청 내부는 혼란스러웠고 그는 조를 편성해 방어 전선을 구축했다.

최후의 항쟁날 새벽, 1층 상황실에서

계엄군의 유탄에 어깨를 맞은 위씨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영화 구경하는 것 같지?”라고 말하던 공수부대는 유리창을 찢고 총을 쏘면서 그 자리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연행했다.

그의 등에는 사전에 이미 제공된 정보대로 ‘극렬’이라는 문구가 적혔고 그는 주머니의 실탄이 적발돼 심한 구타를 당해야 했다.

이후 1982년 석방된 위씨는 이듬해 윤강욱과 재회했다.

윤강욱은 위씨를 봉심정으로 안내했고 이강, 김정길, 박세정 등 70년대 운동권과도 인연을 맺었다. 윤강욱은 봉심정과 김정길의 집에서 1년여간 기거했으며, 1970년대부터 봉심정을 찾아 후배 양성과 반유신·민주화를 위해 매진한 주요 민주인사다.

이들은 봉심정에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논의했고, 1983년 청년, 교수, 목사 등 5·18과 관련된 군부 독재타도에 힘을 실었던 전체 구속자들이 모여 구속자협의회가 구성됐다.

윤강욱은 구속자협의회 간사를 맡았고 위씨는 조력자 역할을 해오다가 이후 간사를 맡게 됐다.

이후 5·18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때 위원장은 홍남순이고 김대중, 김영삼이 고문을 맡았다.

윤강욱과 위씨는 간사를 맡으면서 전국적으로 메달을 판매해 수익금을 가지고 5·

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윤강욱은 1년간 수배당해야 했고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5·18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정치국민운동 전남본부 창설했다.

윤강욱은 1988년 광주청문회가 열리기 전 5·18광주민주항쟁 동지회 회장을 맡아 전두환, 노태우 등 9명을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위씨는 윤강욱의 고소가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었다고 증언하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역할을 할상 해내는 사람이 윤강욱이었다”고 회고했다.

위씨는 40년째 윤강욱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현재 전일빌딩 245에서 해설사를 맡아 당시 암울했던 시대상과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이뤄낸 시민·열사들의 의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씨는 민주주의를 위해 용감했던 모든 이들이 이런 것이 현재의 자유라면서 “6월항쟁까지 이어진 노력과 5·18 진상 규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는지 가슴이 멘다”고 한탄했다.

이어 “봉심정은 동지들이 모여 시국을 논하고 막걸리 한잔을 기울일 수 있었던 고향 같은 곳”이라면서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다녔던 봉심정은 독재타하에서 억압당하면서도 꽃을 피울 수 있던 곳으로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복기자



폐사한 전어떼 수거 28일 오전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앞바다와 삼향천 입구에 새끼 전어 수만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돼 환경정화인력들이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목포시는 해양환경공단의 어업지도선 등을 동원해 수거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목포시 제공>

5층 옥상서 옆건물 건너뛰려다...중학생 추락사

건물 옥상에서 친구들과 무리지어 놀던 한 중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6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5층 상가건물 옥상에서 14살 중학생

A군이 추락했다.

도로를 지나던 행인으로부터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긴급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을 응급처치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A군은 끝내 숨졌다.

당시 친구 4명과 건물 옥상에서 과자들을 먹으며 놀던 A군은 누군가 올라오는 인기척을 듣고 옆 건물로 건너 뛰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옥상에서 노는 것을 들켜지 않으려다 추락하는 잠반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영기자

사업용 자동차 사망 사고 제로화 나선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상시 단속 강화

전남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유관기관과 특별간담회를 열고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zero화’에 나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28일 “최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토부, 전남도청, 전남경찰청, 전남교통연수원, 전남전세버스조합, 전남개인택시조합·공제조합, 전남택시공제조합, 전남화물협회·공제조합, 전남개발화물협회, 전남대여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남지역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8명으로, 렌터카 9명(50%), 화물차 6명(33.3%), 택시 2명(11.2%), 버스 1명(5.6%) 순이다.

이는 지난해에 대비하면 전체사망자가 14명에서 18명으로 4명(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렌터카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9명으로 큰 폭 상승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교통 안전의식 고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속운행 단속 ▲판스프링 등 불법행위 차량 단속 ▲사고발생 운수회사에 대한 특별점검 등이 논의됐다.

양정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 전남도, 전남경찰청, 운수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전남도에서 더 이상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단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 상반기 호남권(전남·전북) 고속도로 주요 지점 16개소(TC,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550대 중 381대가 적발돼 점검 대상 화물차의 69%가 자동차 불법개조 등의 행위를 저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재만기자

입원치료 속여 요양급여비 가로챈 한방병원 의료진 벌금형

하위로 환자를 입원치료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민)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고용 의사 B(45)씨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29일부터 11월12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속여 경험침술·침전기자극술·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298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복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